

주민 주도형 옥외대피 거점 네트워크

미국 시애틀시 | 이경선 통신원

시애틀시는 지진 등 대형 재난으로 행정이 마비될 것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모여 서로 돕는 주민 주도형 옥외 거점인 ‘커뮤니티 이머전시 허브(Community Emergency Hubs)’를 운영함. 현재 시애틀 전역에 총 135개 허브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·커뮤니티 센터·교회 주차장 등 평상시 주민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에 설치되어 재난 시 정보 교환·자원 매칭·상호부조의 다기능 거점으로 작동함. 시는 공식 지정과 지원만 담당하고 실제 운영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점이 특징임

정책 배경

- 시애틀은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, 시애틀시 비상관리국은 지진을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지정
 - 도시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시애틀 단층대에서 최대 규모 7.3 지진 가능
 - 태평양 연안의 캐스캐디아 섭입대(Cascadia Subduction Zone)에서 규모 9.0급 초 거대 지진 가능
- 대지진 발생 시 도시 서비스가 마비되고 일부 지역은 고립될 것을 전제로, 시는 주민이 7일에서 10일간 자력 생존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
 - 주민 간 상호부조 없이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, 시가 주민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
 - 이에 시애틀은 재난 발생 시 주민이 모여 서로 돕는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이머전시 허브를 도시 전역에 구축

정책 내용

- 커뮤니티 이머전시 허브는 사전 지정된 공공 집결지로,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모여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상호부조하는 거점
 - 현재 시애틀 전역에 총 135개 허브가 공식 지정

- 각 허브는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위치와 운영방식이 지역마다 다름
- ◎ 허브의 위치는 커뮤니티 센터, 공원, 놀이터, 공공도서관, 교회 주차장 등 평상시 주민이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으로 지정
 - 지정된 위치가 재난 시 안전하지 않을 경우 대체 장소로 이전 가능
- ◎ 허브는 재난 물자 비축 창고가 아니며, 주민 간 정보, 자원 교환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에 특화
 -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7일에서 10일 치 물, 식량, 응급 의약품을 가정에 비축해야 함
 - 허브는 어디서 도움이 필요한지, 누가 어떤 기술 및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결하는 자원 매칭 기능 수행
- ◎ 허브는 전원 자원봉사자 기반으로 운영되며 주민이 직접 신청해 새로운 허브를 설립할 수도 있음
 - 시 비상관리국(OEM)은 허브 설립을 원하는 주민에게 단계별 가이드 제공
 - 시애틀 이머전시 네이버링크 맵(Seattle Emergency NeighborLink Map)에 주민 연락처와 허브 위치를 등록해 이웃이 서로 찾을 수 있도록 함
- ◎ 시는 허브 조직화 및 운영 지원
 - 시의 비상관리국과 제휴된 SNAP(Seattle Neighborhoods Actively Prepare) 프로그램을 통해 허브 조직화 지원
 - 시의 근린국은 '스몰 스파크 펀드(Small Sparks Fund)'를 통해 주민의 재난 대비 활동에 최대 5,000달러 지원
 - '네이버후드 매칭 펀드(Neighborhood Matching Fund)'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노동, 기부 자재, 전문 서비스와 매칭해 주민 주도 사업에 추가 지원

시사점

- ◎ 허브를 '시설'이 아닌 '주민 네트워크'로 접근
 - 공식적으로 시가 지정·관리하지만 실제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행
- ◎ 행정이 마비되고 도로가 차단되더라도 주민이 도보로 접근하여 허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됨

<https://www.seattle.gov/emergency-management/prepare/prepare-your-neighborhood>

<https://www.seattle.gov/emergency-management/prepare/prepare-yourself>

<https://seattleemergencyhubs.org/>